제품: Basotect® TG

애플리케이션: 도요타 렉서스 대표시리즈 LS 엔진 후드커버



Lexus LS시리즈에 Basotect®을 사용하고 있는 Toyota

일본 도요타 에 위치한 Toyota 자동차 공장에서는 BASF에서 개발한 멜라민 수지 폼 Basotect® TG로 렉서스의 주종모델인 LS시리즈의 엔진후드커버를 만들고 있다. 이는 일본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Basotect® TG를 적용한 사례이다. 이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Basotect®의 열성형가능 버전을 적용함으로써 Toyota는 경량화, 뛰어난 흡음력, 높은 내열성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. 이 세가지 요건은 차내의 안락함을 극대화시킨다. 그리고 휘발유 사용 및 CO2발생을 줄이는 데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.

뛰어난 흡음력

Basotect®는 뛰어난 방음단열재로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. 특히 개방세포와 미세구조를 갖고 있어 중• 고주파에서 흡음력이 아주 뛰어나다. 이러한 특성 덕분에 Toyota의 '차원이 다른 조용함'이란 컨셉트를 확실히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, Basotect®의 밀도는 대략 9kg/m³으로 엔진후드커버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리솜, 펠트, 여타 섬유재보다 훨씬 가볍다. 따라서 차체중량감소에도 도움이 된다.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차량충돌시 안전성 개선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다. Basotect® TG로 만든 엔진커버는 탄력성이 높기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보행자 안전에 최적화된 엔진후드를 생산할 수 있다. 마찬가지로,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.



www.plasticsportalasia.basf.com/basotect

링크: www.plasticsportalasia.basf.com/basotect 출처: BASF보도자료, P 489, 2007년 11월 7일

링크: www.plasticsportal.net/wa/plasticsEU~en_GB/portal/show/common/plasticsportal_news/2007/07_489